

도시는 거대해졌고 인간은 왜소해졌다 이곳에서 과연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나

‘인공낙원’
정윤수 지음



백화점, 테마파크, 극장, 경기장, 박물관, 공항, 모델하우스...

우리 곁에 있는 도심 속이 공간들은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 욕망이 분출되고, 한 시대가 사라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곳이고,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곳이다.

‘축구를 보호하라’, ‘클래식, 시간을 듣다’ 등 다양한 주제로 글을 써온 문화평론가 정윤수씨가 ‘인공낙원-현대도시 문화와 삶에 대한 성찰’을 펴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서울에 올라온 후 오랫동안 도시를 배회했다는 저자가 생각하는 현대 도시의 이미지는 ‘급변하는 대도시, 날로 비대해져 가는 메트로폴리스, 팽진하는 속도와 휴식 없는 노동과 번들거리는 물신의 네온사인으로 가득 찬 무국적의 글로벌폴리스’다.

저자는 그 도시에서 주인공이 된 ‘인공 공간’에 주목한다. 우리 일상 풍경이 자연의 것이기보다는 인공 구조물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책은 광장, 모델, 모델하우스 등 모두 11개의 인공 공간을 찬찬히 들여다본다. 10여년 가까이 직접 사진을 찍고, 취재했던 공간들이라 글마다 현장감이 살아 있어 생생하게 읽힌다. 또 각 공간이 세월을 거치면서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각 공간의 역사적 의미는 무엇인지 등을 다양한 참고 자료와 통계 등을 통해 기술한 부분은 정보를 얻는 재미가 있다.

그가 들여다본 광화문 광장의 이미지는 일그러져 있다. 고대 시절, 광장은 시민들이 자연스

레 모여들어 서로의 삶을 이야기하는 소통의 장이었다. 하지만 세종대왕 동상이 들어서고 각종 이벤트가 난무하는, 인위적으로 급조한 광장은 전혀 광장으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가 바라본 경기장은 ‘헛헛한 거대도시에서 수만명이 저마다의 감정과 취향을 일순간에 비폭력적으로 분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공간’이다. 영화관은 인공도시 안에서 ‘산책’을 해야 하는 현대인에게 쉽지가 않다. 시각적 자극을 제공하는 쾌락의 낙원이다.

저자는 그밖에 해체된 시간 재구성된 공간인 공항, 가설무대의 삶이라 일컬은 모델하우스, 욕망의 진양지 백화점, 폐광지의 불야성 카지노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책은 문화 관련 글들을 써온 저자의 장점을 잘

드러낸다. 그는 서울역의 푸드코트에서 함민복의 시 ‘서울역 그 식당’을 읊조리고, 모델하우스에서 김소진의 소설 ‘달’을 기억한다. 유년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공간과 관련된 개인 경험들을 풀어낸 이야기들도 재미있게 읽힌다.

저자가 직접 찍은 사진은 ‘사진이 말을 하도록 하겠다’는 작가의 의도를 제대로 전달해준다. 전문가가 찍은 사진보다 매끄럽지는 않지만, 사진 한장 한장에 담겨 있는 이야기와 충실한 설명은 책의 가치를 높인다.

저자는 “도시는 거대해졌고, 인간은 왜소해졌다. 인공 공간은 찬란한 빛을 발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점점 주눅들고 있다.(중략). 거대 도시의 인공공간을 배회하면서 나는 ‘과연 인간적 삶이란 가능한가?’라는 근원적 질문을 잃지 않으려 했다”고 말한다. 독자들에게도 똑같이 던져진 질문이다. <구리·1만8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테마파크는 ‘놀이하는 인간’의 원초적 욕망을 자극한다.

성장이 멈춘 한 소년의 아름다운 이야기

‘고양이를 안고 코끼리와 헤엄치다’
오가와 요코 지음



기모 마음먹고 자동 체스 인형 기계를 만들어 그 속에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체스를 두면서 아름다운 기보(棋譜)를 만들어간다.

소년이 아픔을 받아들이는 과정도 눈물겹게 펼쳐진다. 자신의 장애에 대해 물어오는 소년을 달래주기 위해 할머니는 “하느님도 가끔 허둥댈 때가 있다”고 말한다.

하느님이 다른 데 특별히 신경을 써주기 위해 소년의 입술을 땀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다.

소년은 입이 붙어서 태어난 대신에 “하느님이 눈인 지, 귀인 지 그 어느 곳에 보통 사람한테는 없는 특별한 장치를 해줬다”는 할머니의 말에 위안을 얻는다.

<현대문학·1만3000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인류 역사 속에 감춰진 위대한 영웅들

‘역사 속의 영웅들’
윌 듀런트 지음



성장 ‘르네상스’ ‘종교개혁’ ‘세익스피어와 베이컨의 시대’로 구분해 서양의 역사를 들려준다.

문명의 시작에서 근대의 완성에 이르는 역사상 가장 화려했던 시기를 유려한 문체로 그려냈다.

처음 23장으로 계획됐지만 집필 도중 저자가 사망함에 따라 세익스피어와 엘리자베스 여왕시대가 마지막 장이 됐다.

눈여겨 볼 점은 그 당시 당면했던 생각과 의문들이 책 속에 투영돼 있다는 점이다. 또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고, 철학적 시선도 곁들여 읽는 재미를 더해준다. <김영사2만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세계적 베스트셀러 ‘철학이야기’의 저자인 미국의 철학자이자 역사가 윌 듀런트(1885~1981년)가 남긴 마지막 책 ‘역사 속의 영웅들’이 다시 번역·출간됐다. 이 책은 윌 듀런트의 대표작인 ‘문명 이야기’ 11권을 인물 중심으로 모은 책이며, ‘역사를 배우는 경이로운 입문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대에서 현대까지 활약한 영웅들의 삶을 통해 독자들이 인류의 역사를 안배한다. 저자가 소개하는 영웅이란 위대한 정치가나 장군뿐 아니라 사상가, 예술가, 시인까지 포함된다.

또 ‘4대문명 발상지’ ‘고대 그리스·로마’ ‘기독교의

소수민족정책으로 살펴본 재미있는 사회

‘...코리안 아메리칸’
최협 지음



전남대 인류학과 최협 교수가 재미있는 사회에 대한 사회인류학적 접근을 담은 ‘다민족사회, 소수민족, 코리안 아메리칸’을 냈다.

저자는 1790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이민사를 먼저 소개한다. 1842년 10만명 안팎이었던 이민자들은 1845년 아일랜드의 감자 흉년으로 1850년까지 150만명의 아이리시인들이 미국으로 건너오게 됐다.

하지만 초기 미국의 이민사는 유럽

후 동양계 이민에 차별적인 법이 제정됐다. 이 법은 1965년 개정이 있을 때까지 별다른 수정없이 지속됐다.

저자는 이런 미국 이민사 속에서 미국 내 한인사회의 문제점을 민족문제 및 소수민족정책과 연계해 살펴보고 있다. <전남대 출판부·1만4000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마음 속 상처, 먼저 자신과 화해하라

‘화해’
틱낫한 스닙 지음



‘화’(anger)로 유명한 명상가이자 평화운동가인 틱낫한 스닙의 심리치유서 ‘화해’가 번역 출간됐다.

스닙은 책을 통해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엇보다 먼저 자신과 화해하라고 말한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참지 못하고 화를 내는 것은 ‘우리 내면에 있는 아이’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며, 내면에 있는 아이의 상처를 치유해야만 우리의 고통도 치

유될 수 있다고 스닙은 말한다.

또 ‘불건 치유기 명상법’ ‘16가지 호흡 수행법’ ‘평화의 편지 쓰기’ ‘감정을 밖으로 쏟아내기’ 등 ‘내면의 아이’를 치유하는 7가지 수행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준다.

스닙은 내면의 상처받은 아이와 만나 자신을 치유하고 나면 상처입은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손길을 내밀 수 있다고 강조한다.

<불광출판사·1만3000원>

제자백가의 귀환... 철학사를 다시 시작하다

‘철학의 시대’ ‘관중과 공자’
강신주 지음



‘철학이 필요한 시간’ 등의 철학서를 낸 강신주씨가 춘추전국시대 제자백가 철학자들의 사유를 정리한 ‘제자백가의 귀환’시리즈를 펴낸다. 총 12권으로 기획된 시리즈 가운데 1권 ‘철학의 시대’와 2권 ‘관중과 공자’를 먼저 선보였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 관중, 공자, 손자, 오자, 목자, 양주, 상양, 맹자, 노자, 장자, 혜시, 공손룡, 순자, 한비자 등 제자백가를 대표하는 사상가들을 모두 소개한다.

또 개별 사상가들의 사상만 따로 떼어보는 것이 아니라 제자백가라는 전체 퍼즐 속에서 사상가들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한 점도 특징이다.

저자는 “춘추전국시대는 전쟁과 내란, 굶주림 등이 이어진 잔혹한 시대였다”면서 “인간과 사회에 대한 성찰이 가장 노골적으로, 화려한 수사 없이 등장한 때”라고 설명한다.

또 “제자백가 사상가들은 이러한 극한의 상황에서 인간과 인간사회에 대한 꿈과 희망을 버리지 않았던 사람들이며, 제자백가의 깊이는 바로 거기서 오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시계절 각 1만5000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신간

▲화석이 말을 한다면=국립중앙과학관 화석으로 재조각 중인 김동희씨가 지구와 생명의 46억 년 역사를 화석을 통해 설명한 책.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암석인 40억 년 전의 아카스타 편마암부터 호모 사피엔스 화석까지 다양한 화석들의 이야기를 통해 생명의 기원과 진화를 살펴본다. 공룡의 갑작스런 대멸종과 매머드, 검치호 등 포유류들의 등장 등 흥미로운 내용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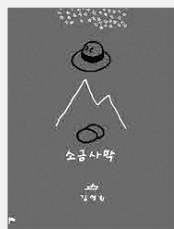
<사이언스북스·1만5000원>

▲이렇히는 밤=김유정문학상과 한국일보문학상을 받은 소설가 강영숙의 소설집. 자연재해와 환경오염으로 처참하게 망든 도시의 풍경을 쓸쓸하게 그리고 있다. 소설 속 주인공들은 문대동, 강변북로, 황학동, 뉴올리언스 등 구체적인 지명을 오가며 공포의 이미지에 현실감을 더한다. ‘재해지역투어버스’와 ‘라디오와 강’은 허리케인과 홍수가 휩쓸고 간 뒤의 미국 도시 풍경을 담은 소설이다.



<창비·1만1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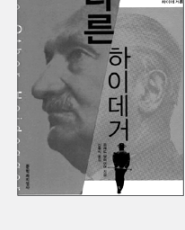
▲소금사막=MBC ‘나는 가수다’를 기획한 김연희 PD가 펴낸 남미 여행기. 저자가 ‘나는 가수다’에서 물러난 뒤 60일간 멕시코 시티부터 파나마 시티까지 남미지역 31곳을 여행하며 느낀 단상을 담았다. 책은 여행 경로나 현지 별미, 가볼만한 장소를 소개하기보다는 개인적 감상을 ‘나는 가수다’의 뒷이야기와 함께 전한다.



<알라·1만6500원>



▲양진석의 친절한 건축이야기=유명 건축가 양진석이 들려주는 알기 쉬운 건축이야기. 건축은 역사, 철학, 인문학, 공학, 심리학, 경제학 등 수많은 개념이 복합적으로 융합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공간과 건축에 대한 총체적인 입문서다. 다양한 관련 사진을 통해 건축의 기원 상식을 키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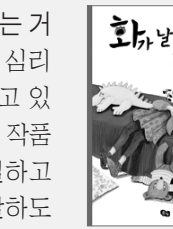


<문학과지성사·1만8000원>

▲대통령을 위한 물리학=미국 캘리포니아 대 버클리캠퍼스(U.C 버클리) 교수로 재직 중인 리처드 파인먼이 책에서 테러리즘과 에너지, 원자력, 우주, 지구 온난화 등 국가 지도자들의 대표적인 관심사 다섯 가지 주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물리를 알고 나면 9·11 테러도, 생화학 무기도 훨씬 이해하기 쉬워지며 화석연료를 두고 벌이는 온갖 헤프닝의 이면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림·1만5000원>

▲화가 날 때도 있는 거야=현재 독일에서 심리치료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홀데 크로일의 쓴 작품으로 아이들이 적절하고 올바른 감정을 전달하도록 도와주는 학습 그래픽이다.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 화가 나서 팔찌 뛰는 마음, 엉엉 울고 싶은 마음 등 실제 아이들이 일상에서 겪는 감정들을 표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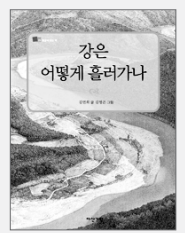


<풀빛·1만원>

▲너만 아는 내 초특급 비밀=아무에게도 말 못할 초특급 비밀을 일곱개나 가지고 있는 다희가 들려주는 유쾌한 이야기다. 다희의 비밀은 ‘우리 엄마 아빠, 잉꼬 부부 아니예요’, ‘어릴 때 이미 쌍꺼풀 수술했어요’ 등 아이들이 한번쯤 마음에 품었을 만한 비밀들이다. 삼성문화재단 장편 동화 부문에서 수상한 김혜리 작가의 작품이다.

<시공주니어·9000원>

▲강은 어떻게 흘러가나=‘창덕궁에서 만나는 우리 과학’으로 참비 ‘좋은 어린이책’ 기획 부문 대상을 수상한 김연희 작가 두번째 책. 세



<맑은가람·1만1000원>

▲세상을 다스린 아이들=어린 시절 한 나라를 다스리는 군주가 된 어린 군주 다섯명의 흥미진진한 삶을 다룬 책으로 2008년 캐나다 어린이책센터 최고의 아동·청소년 책으로 선정됐다. 이집트의 투탕카멘,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 스웨덴의 크리스티나 여왕, 중국의 마지막 황제 후이, 티베트의 달라이 라마의 삶을 만날 수 있다.

<이카넷주니어·1만2000원>

어린이 책꽂이